# "광주 5월과 제주 4월 기억하겠습니다"

## 광산구에 내륙 첫 제주 4·3 희생자 추모 조형물 건립 강문석 작품 '민중의 힘'…"인권·평화의 가치 담았다"

"광주의 5월과 제주의 4월을 기억하고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제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일 내륙 최초로 제주 4·3 희생자를 기억하는 조형물인 4월걸상이 광주에 건립됐다.

인권연대 오월걸상위원회는 이날 오 전 11시30분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산 문화예술회관 광장 앞에서 '4월걸상' 제막식을 열었다.

제막식은 강우일 주교(前 천주교 제주교구장), 김희중 대주교(前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제주 4·3유족회, 박병 규 광산구청장, 강문석 작가,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류성호 광주전남기자협회 장 등이 참석했다.

4월걸상은 지난해 5월 제주도민들이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며 오월 걸상 (제6호)을 세워줬던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광주 시민사회의 모금으로 제작됐다.

강문석 작가가 '민중의 힘'이라고 이름 붙인 걸상의 윗 부분엔 제주 4·3의 상징인 동백꽃이, 그 옆에는 '제주 4·3, 오월 광주'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제주와 광주가 연대해 우리 사회에 인 권과 평화의 가치가 뿌리내려질 수 있 도록 힘쓰자는 의미가 담겼다.

식전공연 후 본 행사는 참석자 소개, 강문석 작가의 작품 설명, 제막행사, 인 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강문석 작가는 "제주 4·3 학살의 상 징인 총알이 꺾인 모습을 형상화했 고, 그 밑엔 민중의 힘을 상징하는 제 주 몽돌을 놓았다"며 "거칠고 큰 바위 였던 몽돌이 하천과 바다를 구르며 매 끈하게 변한 것처럼 거친 시간 속에 작아졌더라도 모인 민중의 힘으로 폭 력을 이겨내 인권·평화의 가치를 지 켜냈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 다.

제주 4·3유족회는 "4·3의 폭력은 6·2 5전쟁,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에서 복습하고 재현됐다"며 "대규모 집단 적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기억을 끊임없이 되 살리고 연대해 증폭시켜 나가야 한다. 때문에 광주에 4월걸상을 설치하는 것 은 인간 존중과 평화의 연대를 강화하 는 희망찬 상징이 될 것이다"고 예견 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광주의 5·18과 제주의 4·3은 하나다. 앞으로도 함께 연대하고 기억해 나가야 할 아픈 역사"라면서 "이 작은 걸상이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매개체가 될 수있길 바란다"고 소원했다.

한편 제주 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 등을 기점으로 경찰과 서북청년단에 의해 약 3만명의 무고한 제주도민이희생된 사건이다. /장은정기자



제주 4·3희생자를 기억하는 조형물 의자 '사월걸상' 제막식이 2일 오전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장은정기자

# "KIA·광주FC 경기 보고 여행도 즐겨요"

#### 광주관광공사, 입장권·숙박 등 포함 1박2일 관광상품 출시

프로 야구와 축구를 관람하고 광주 를 둘러보는 스포츠 관광 상품이 나온 다.

광주관광공사는 2일 "여행공방, 홍 익여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프로 스포 츠와 연계한 숙박형 관광 상품을 개발, 이번주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명문구단인 KIA 타이거즈 와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13위를 달성 해 돌풍을 일으킨 광주FC의 홈경기 입 장권과 숙박, 교통 등을 포함한 상품을 선보인다.

1박2일 일정의 버스 야구 여행 상품 인 '야구보러 광주가자'는 첫날 서울 용 산역에서 버스로 출발해 광주 양동시 장, 기아타이거즈 역사관과 야구 관람 을 한 뒤 이튿날 동명동, 아시아문화전 당, 무등산 증심사를 관광한다.

기차여행 상품인 '야구보고 광주보고 일석이조 더블헤더 광주여행'은 첫 날 KTX 용산역을 출발해 광주 청춘 발산마을, 양림동, 야구 관람 후 둘째 날전일빌딩 245, 동명동, 무등산, 국립광

주박물관, 아시아문화전당, 송정역 시 장을 둘러보고 서울로 복귀한다.

광주FC 홈경기 관람과 청춘 발산마을, 양림동, 아시아문화전당 등을 연계한 '축구보러 광주가자' 상품도 곧 출시할 예정이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국내 최초로 프로 야구와 축구를 모두 연계 한 관광 상품을 선보인다"며 "광주FC 가 출전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02 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대형 스 포츠 이벤트와 관광을 연결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수회기자

#### 광주교육청, 늘봄학교 45곳 확대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1학기 우선 시 행 늘봄학교를 32개교에서 45개교로 확 대 운영한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 전

면 시행을 대비해 안정적인 늘봄학교운영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우선 시행학교를 늘렸다.

추가 운영 13개교에는 늘봄지원센터

를 통해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를 채용, 배치할 계획이다. 또 운영에 필요한 환경개선비, 재료비, 운영비 등도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에 있어 교육청과 학부모의 쌍방향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1학

기 우선시행 늘봄학교의 학부모 27명 으로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

위촉식과 사전 교육 실시 후 본격적 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광 주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소통하는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김다이 기자



### 道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66곳 지정

전남도교육청은 2일 "2024 다문화교 육 정책학교 66개교 (유치원 30개원, 초 등 25개교, 중등 6개교, 고등 5개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학생들에게 다문화 감 수성을 제공하고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기타 교내외활동 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평등성,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 문화 이해, 협력 등 다문화교육 요소를 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기초학력 향상, 진로지도, 심리 정서지원, 한국어 및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을 교내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들과 연계·운영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관리자 및담당자들은 이날 전남도교육청창의 융합교육원에서 개정 누리과정,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교육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다문화학 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언어 적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클래스팅 알림장 번역서비스를 직접 활용해보기 도했다. /김다이기자



+